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2026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 1(2) 봄·봄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 이번 작품 「봄·봄」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돼.
1. 해학성이 드러나는 요인을 묻는 문제
 2. 소설의 내용을 묻는 문제
 3. 서술상의 특징, 서사 갈래의 특징과 관련하여 묻는 문제



그렇다면 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작품에서 해학성이 드러나는 요인, 작품의 내용, 서술상의 특징, 서사 갈래의 특징 등을 알아두면 되겠네요~

맞아. 중요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볼까? 이 작품은 **상황을 과장되게 설정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며, **토속어와 비속어** 등을 사용해 **향토적인 느낌과 현장감**을 준다는 특징이 드러나 있어. 아까 ‘해학성이 드러나는 요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했지?

「봄·봄」의 해학적 요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렴.

인물과 시점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인공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수룩하고 우직한 인물인 데서 해학성이 드러남.
과장된 희극적 상황	장인과 사위의 정상적인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나’와 장인의 격투 장면이 웃음을 유발함.
방언과 비속어의 사용	등장인물의 강원도 사투리 및 비속어의 사용이 웃음을 유발함.
익살스러운 표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익살스러운 표현이 해학성을 불러일으킴.



선생님, 그런데 ‘역순행적 구성’은 뭐고 ‘해학성’은 뭐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I 직전 보강 확인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작품 「봄·봄」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돼.

1. 해학성이 드러나는 요인을 묻는 문제
2. 소설의 내용을 묻는 문제
3. 서술상의 특징, 서사 갈래의 특징과 관련하여 묻는 문제



그렇다면 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작품에서 해학성이 드러나는 요인, 작품의 내용, 서술상의 특징, 서사 갈래의 특징 등을 알아두면 되겠네요~

맞아. 중요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볼까? 이 작품은 상황을 _____ 되게 설정하여 _____ 을 유발하고, _____ 적 구성을 보이며, _____ 어와 _____ 어 등을 사용해 _____ 인 느낌과 _____ 을 준다는 특징이 드러나 있어. 아까 '_____ 이 드러나는 요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했지?

「봄·봄」의 _____ 요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렴.

_____ 과 _____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인공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_____ 하고 _____ 한 인물인 데서 해학성이 드러남.
_____ 된 _____ 적 상황	장인과 사위의 정상적인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 '나'와 장인의 _____ 장면이 _____ 을 유발함.
_____ 과 _____ 의 사용	등장인물의 _____ 도 사투리 및 _____ 의 사용이 웃음을 유발함.
_____ 스러운 표현	상황에 맞지 않는 _____ 표현이 _____ 을 불러일으킴.



선생님, 그런데 '역순행적 구성'은 뭐고 '해학성'은 뭐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2026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 1(2) 봄 · 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발단] “**장인님!**(‘장인어른’ 대신 잘못된 호칭을 사용함. ‘나’가 무지하고 어수룩한 인물임을 알 수 있음.) 인젠 저…….”

내(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자세히 서술한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나’와 장인이 갈등하는 원인)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나이가 아니라 키를 문제 삼아 성례를 시켜 주지 않음. → 장인의 계약에 순진한 ‘나’가 속아 넘어감. 장인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모습과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나’는 점순이가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3년 7개월 동안 일했지만, 점순이의 키가 더 자라야 한다는 핑계로 아직 성례를 못 하고 있음.)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다가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짜장’의 방언. ‘과연 정말로.’의 의미. 방언 등을 사용해 향토적인 느낌, 등장인물의 소박함과 진실성을 느끼게 해 줌.)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장인의 인색한 성격이 드러남.)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병병하고 만다.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미룸.

[이래서 나는 애척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썼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나’ 역시 장인과의 계약이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음.)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력무력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린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나’가 순진하고 어수룩한 성격임이 간접적으로 제시됨.)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불만을 드러냄.)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적반하장(賊反荷杖):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멍새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승겁기도 할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다.**(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상황)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 번 재 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움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제-미, 키두!**”(비속어. 키가 자라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표현함. 해당 부분에 드러나는 ‘나’의 심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고 논둑에다 침을 튜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넘을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사람을 동물과 비교하여 해학적으로 표

현함.),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 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뺨다귀가 움츠라드나 부다하고, 내가 년쫓년쫓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줘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죠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나’는 점순이의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점순이의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미숙함으로 해학적 웃음을 유발함.) 어떻게 돼먹은 낀지 이래도 막무관해니…….

▶ 성례를 위해 점순이의 키가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

▶ 발단: 성례 문제를 둘러싼 ‘나’와 장인 간의 갈등

[전개 1]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밍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사건의 흐름이 나타난 표지 / 역순행적 구성. 어제 장인과 싸웠던 일을 떠올림. ‘사건 진행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로 순차적으로 흐르는 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모를 붓다가(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승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외양 묘사 → 장인의 욕심 많은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냄.)(가 너머 먹은 걸 모르고 내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으곤 조금도 싫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씨다듬으면서 그대루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껴든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나’의 단순하고 우직한 성격이 드러남.)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돌아 오른 풀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쓱쓱 문태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피병을 부리며 장인의 반응을 살피고 있음. “나’는 장인에게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피병을 부렸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 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드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우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드니 **잡은 참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장인이 ‘나’를 사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자식아,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셈속이냐? 이 **대가릴 까눌 자식**(비속어의 사용. 해학적 표현).”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낮춤 표현과 높임 표현을 동시에 사용해 불만을 드러냄. 장인은 높임의 대상이지만 ‘나’를 함부로 대해서 ‘나’는 이미 장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어진 상황임.)은 어디 있느냐.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옥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 놓고 ‘**옥필이(번 이름이 봉필이니까)**(언어유희), 옥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옥보다 읍의 배 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옥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똘똘.]([: 장인의 품성과 특징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함. ① 손버릇이 안 좋음. ② 옥을 잘함. ③ 나쁜 마름임. 해당 부분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소작권을 박탈당함. 마름의 횡포)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든 놈이 **그 땅을 슬쩍 둘러안는다.**(소작권을 얻음.)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은 그 옥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실굶실하는 게 아닌가…….

▶ 장인의 마름으로서의 행태와 성품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똥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이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장인이 농사를 짓는 데 ‘나’의 노동력이 꼭 필요하므로 소작인들 대하듯 하지 못함.)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

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역순행적 구성) 트집을 좀 하나까 **늦잠 잔다구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놔다.**(장인의 거친 성격) 사날씩이나 건승 ‘공, 공.’ 앓았드니 종당에는 **거반 올상이 되지 않았는가…….**(‘나’가 다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것이 속상해서)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장인의 회유(거짓말): ‘나’를 부려 먹기 위한 미봉책)

그래 귀가 번쩍 띄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를 품 들일 눈을 혼자 삶어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나’가 무지하고 어수룩하나 농사일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오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어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르치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구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온!**(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장인의 교활함이 드러남. → 간접적 성격 제시)”

하고 남 낫짝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댓돌에다 메꿨고 우리 고향으로 내 뺨까 하다가 꼭꼭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작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 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스며,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쳐 내슈, 뭐.”]([]: 해당 부분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로 적절할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사위라는 명목으로 사경을 주지 않으려고 함.)

“그러면 얼쩡 성렐 해 줘야 안 하지유. 밤낮 부려만 먹구 해 준다, 해 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작년과 다르게 ‘나’의 태도가 단호해짐.)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구 뺨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 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장인이 ‘나’를 계속 때림.)

▶ 장인을 데리고 구장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으려는 ‘나’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사건의 역전 / 어저께 → 그저께. **작품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발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느냐.**(독자에게 말을 건네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말투 → 인물에게 친근한 느낌을 갖게 함.)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 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우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주 모르지만 병)이 날랴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봄이 되어 괜히 마음이 들뜨며 춘정이 일어나는 상황. ‘봄’이라는 계절이 이성애에 대한 애정을 자극함.)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소) 때문이 아니라 점순이를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든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두 아니고, 꼭 내 안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울에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2026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 1(2) 봄 · 봄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발단] “**장인님!**(‘장인어른’ 대신 _____ 호칭을 사용함. ‘나’가 _____ 고 _____ 한 인물임을 알 수 있음.) 인젠 저…….”

내(_____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자세히 서술한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__’와 __이 __하는 원인)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____가 아니라 __를 문제 삼아 _____를 시켜 주지 않음. → 장인의 _____에
순진한 ‘__’가 속아 넘어감. **장인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모습과 관련하여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나’는 _____가 자
라는 대로 _____를 시켜 주겠다는 _____의 약속을 믿고 3년 7개월 동안 일했지만, _____의 _____가 더 자라야 한다는 핑계로 아직
_____를 못 하고 있음.)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짜장’의 방언. ‘과연 정말로.’의
의미. _____ 등을 사용해 _____적인 느낌, 등장인물의 _____과 _____을 느끼게 해 줌.)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장인의 _____ 성격이 드러남.)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
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병병하고 만다.

▶ _____이 점순이의 _____를 핑계로 ‘나’와 점순이의 _____를 미룸.

[이래서 나는 애최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
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__’ 역시 _____과의 _____이 _____함을 인지하고 있음.)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
이 어려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__’가 _____하고 _____한 성격임이 _____으로 제시
됨.)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_____표현과 _____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불만을 드러냄.)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떴고 도리
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_____ (賊反荷杖): _____사람이 아무 _____도 _____
사람을 _____을 이르는 말)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승겁기도 할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다.**(_____ (鶴首苦待)하는 상황)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 번 재 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움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제-미, 키두!”(_____. 키가 자라지 않는 데 대한 _____을 표현함. **해당 부분에 드러나는 ‘나’의 심리를 묻는 문제가 출
제될 수 있습니다.**)

하고 논둑에다 침을 튜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넘을락 말
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폭폭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_____을 _____과 비교하여 _____으
로 표현함.),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 보았다. [아하, 물둥이를 자꾸 이니까 뺨다귀가 움츠라드나 부
다 하고, 내가 년쫓년쫓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
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줘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조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나는 점순이의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점순이의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의 _____으로 _____을 유발함.) 어떻게 돼먹은 낚시 이래도 막무관해 니…….

▶ _____를 위해 _____의 키가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____'
▶ 발단: _____문제를 둘러싼 '____'와 _____간의 갈등

[전개 1]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밭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사건의 _____이 나타난 표지 / _____적 구성. 어제 _____과 싸웠던 일을 떠올림. '사건 진행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로 순차적으로 흐르는 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몰을 붓다가(_____적 배경이 _____임을 알 수 있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승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외양 묘사 → 장인의 _____ 많은 성격을 _____적으로 드러냄.)(가 너머 먹은 걸 모르고 내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으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씨다듬으면서 그대루 눈독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껴든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____'의 단순하고 _____한 성격이 드러남.)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돌아 오른 풀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_____을 부리며 _____의 반응을 살피고 있음. '나는 장인에게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꾀병을 부렸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 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드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우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드니 **잡은 참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_____이 '____'를 _____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_____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자식아,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셈속이나? 이 **대가릴 까늘 자식**(_____의 사용. _____적 표현).”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_____표현과 _____표현을 동시에 사용해 _____을 드러냄. _____은 _____의 대상이지만 '____'를 함부로 대해서 '____'는 이미 _____에 대한 _____의 마음이 없어진 상황임.)은 어디 있느냐.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옥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 놓고 **‘옥필이(번 이름이 봉필이니까)**(_____), 옥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옥보다 읍의 배 참 봉 댕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옥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_____의 _____과 _____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함. ① _____이 안 좋음. ② _____을 잘함. ③ _____임. 해당 부분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과 관련하여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는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_____을 _____당함. 마름의 _____)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든 놈이 **그 땅을 슬쩍 둘러안는다.**(_____을 _____음.)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 들고, 동리 사람은 그 옥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실굶실하는 게 아닌가…….

▶ 장인의 _____으로서의 _____와 _____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이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_____이 _____를 짓는 데 '나'의 _____이 꼭 필요하므로 _____들 대하듯 하지 못함.)을 펍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_____적 구성)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구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났다.**(_____의 _____

__ 성격) 사날씩이나 건승 ‘공, 공.’ 앓았드니 종당에는 **거반 올상이 되지 않았는가…….**(‘__’가 다친 것이 __
 것이 아니라 __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것이 _____)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장인의 __ (____): ‘나’를
 부려 먹기 위한 _____)

**그래 귀가 번쩍 띠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를 품 들일 눈을 혼자 삶어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__’가 __하고 _____ 하나 _____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오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르치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구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온!**(____가 한 _____을 지키지 않는 장인의
 _____이 드러남. → _____적 성격 제시)”

하고 남 낫짝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댓돌에다 메꿨고 우리 고향으로 내
 빨까 하다가 꼭꼭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작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 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스며,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____이 _____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쳐 내슈, 뭐.”]([] : **해
 당 부분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____라는 명목으로 _____을 주지 않으려고 함.)

“그러면 얼쩡 성렐 해 줘야 안 하지유. 밤낮 부려만 먹구 해 준다, 해 준다…….”

“글썸,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꼈었다.**(작년과 다르게 ‘__’의 태도가 _____해짐.)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구 뺨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 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____이 ‘__’를 계속 때림.)

▶ _____을 데리고 _____을 찾아가서 _____을 지으려는 ‘나’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사건의 _____ / _____ → _____, **작품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발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독자에게 _____을 건네며 _____를 들려주는 듯한 말투 → 인물에게 _____
 _____느낌을 갖게 함.) 발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 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우에서 벌들은 가끔
 ‘봉, 봉.’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
 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주 모르지만 병)이 날라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
 울렁하고 이랬다.**(____이 되어 괜히 _____이 들뜨며 _____이 일어나는 상황. ‘__’이라는 계절이 _____에 대한 _____을 자극함.)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발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
 의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____)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든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두 아니고, 꼭 내 안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에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
 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현철이들 크건만 이건 우아래가 몽툭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____에 대한____)가 젤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2026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 1(2) 봄 · 봄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봄·봄」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동촌 소설, 순 준 소설
성격	토속적, 해학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구성	역순행적 구성
배경	• 시간적: 1930년대 • 공간적: 강원도 산골 마을
주제	어수룩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 활한 장인 간의 해학적 갈등
특징	• 상황을 과장되게 설정하여 웃음을 유 발함. • 사건의 시간과 서술 순서가 뒤바뀐 역 순행적 구성을 보임. • 토속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향토 적인 느낌과 현장감을 줌.

2. 「봄·봄」의 구성

발단	성례 문제를 둘러싼 '나'와 장인 간의 갈등
전개 ①	점순이가 '나'에게 성례를 재촉할 것 을 부추김.
전개 ②	구장의 집에서 '나'와 장인이 담판을 벌임.
전개 ③	'툭태'는 장인의 행동을 비판하며 '나' 를 총동질함.
위기	'툭태'의 부추김과 점순이의 총동질 로 인한 장인과의 갈등 심화
절정 ①	점순이의 총동질로 장인과 활극을 벌 이는 '나'
절정 ②	'나'는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 때문 에 얼이 빠짐.
결말	싸움이 끝나고 '나'와 장인 간에 화해 가 이루어짐.

3. 등장인물의 성격

'나'	점순이와 혼인을 시켜 주겠다는 장인의 약속을 받고 대가 없이 일 을 해 주고 있는 어수룩하고 순박 한 인물
장인	혼인을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하 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인물이며, 마름의 지위에 있으나 전반적으 로 품위와 교양이 없음.
점순	혼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부추겨 '나'가 아버지와 맞서게 하 나, 정작 싸움이 벌어지자 아버지 편을 들어 '나'를 당황하게 함.

4. 「봄·봄」에 나타난 갈등의 내용과 원인

갈등의 원인	갈등의 내용
장인은 '나'와 점순이 의 성례를 시켜 주기로 약속했으나, 점순이가 아직 덜 컸다는 이유로 계속 혼인을 미룸.	'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장인에 대한 반항으로 꼬병을 부리지만, 장인 은 '나'를 때려서라도 일을 시키려 함. 결국 점순이와의 성례 문제 로 장인과 몸싸움을 함.
삼 년 넘게 일만 하면 서 성례 문제에 소극적 인 '나'를 점순이가 답 답해함.	점순이는 혼인을 재촉 하기 위해 '나'를 총동 질하지만, 정작 싸움이 나자 아버지인 장인의 편을 듭.

TEST 1단계

1. 「봄·봄」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편 소설, □춘 소설, □수 소설
성격	□속적, □학적
시점	□인칭 □인공 시점
구성	□순행적 구성
배경	• 시간적: 19□0년대 • 공간적: □원도 □골 마을
주제	어수룩한 □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활한 □인 간의 □학적 갈등
특징	• 상황을 □장되게 설정하여 □음을 유발함. • 사건의 □간과 □술 순서가 뒤바뀐 □순행적 구성을 보임. • □속어, □속어 등을 사용하여 □토적인 느낌과 □장감을 줌.

3. 등장인물의 성격

‘나’	□순이와 □인을 시켜 주겠다는 □인의 약속을 믿고 □가 없이 일을 해 주고 있는 □수룩하고 □박한 인물
장인	□인을 미끼로 □동력을 착취하는 □선적이고 □활한 인물이며, □름의 지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위와 □양이 없음.
점순	□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부추겨 ‘나’가 □버지와 맞서게 하나, 정작 □움이 벌어지자 □버지편을 들어 ‘나’를 □황하게 함.

2. 「봄·봄」의 구성

발단	□레 문제를 둘러싼 ‘나’와 □인 간의 갈등
전개 ①	□순이가 ‘나’에게 □레를 □촉할 것을 부추김.
전개 ②	□장의 집에서 ‘나’와 □인이 담판을 벌임.
전개 ③	‘□태’는 □인의 행동을 비판하며 ‘나’를 총동질함.
위기	‘□태’의 부추김과 □순이의 총동질로 인한 □인과의 갈등 심화
절정 ①	□순이의 총동질로 □인과 활극을 벌이는 ‘나’
절정 ②	‘나’는 □인의 편을 드는 □순이 때문에 얼이 빠짐.
결말	싸움이 끝나고 ‘나’와 □인 간에 □해가 이루어짐.

4. 「봄·봄」에 나타난 갈등의 내용과 원인

갈등의 원인	갈등의 내용
□인은 ‘나’와 점순이의 □레를 시켜 주기로 약속했으나, 점순이가 아직 덜 컸다는 이유로 계속 □인을 미룸.	‘나’는 □을 하지 않고 □인에 대한 □항으로 □병을 부리지만, 장인은 ‘나’를 때려서라도 □을 시키려 함. 결국 점순이와의 □레 문제로 □인과 몸싸움을 함.
삼 년 넘게 일만 하면서 □레 문제에 소극적인 ‘나’를 □순이가 답	□순이는 □인을 재촉하기 위해 ‘나’를 총동질하지만, 정작 싸움이 나자 □버지인 □인의 편을 듦.

TEST 2단계

1. 「봄·봄」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 표 소설, [] 첫 소설, [] 소설
성격	[] 사 적, [] 흥 적
시점	[] 오 첫 [] 저 오 기 시점
구성	[] 오 사 흥 적 구성
배경	• 시간적: [] 첫 [] 기 [] 비 [] 사 [] 사 년대 • 공간적: [] 기 [] 오 [] 지 [] 사 [] 기 마을
주제	어수룩한 [] 지 [] 리 [] 사 [] 오 와 그를 이용하는 [] 기 [] 흥 [] 흥 [] 저 [] 오 간의 [] 흥 [] 흥 적 갈등
특징	• 상황을 [] 기 [] 지 되게 설정하여 [] 오 [] 오 을 유발함. • 사건의 [] 사 [] 기 과 [] 사 [] 사 순서가 뒤바뀐 [] 오 사 흥 적 구성을 보임. • [] 트 [] 사 어, [] 비 [] 사 어 등을 사용하여 [] 흥 [] 트 적인 느낌과 [] 흥 [] 지 감을 줌.

2. 「봄·봄」의 구성

발단	[] 사 [] 리 문제를 둘러싼 '나'와 [] 지 [] 오 간의 갈등
전개 ①	[] 지 [] 사 [] 오 가 '나'에게 [] 사 [] 리 를 [] 지 [] 첫 할 것을 부추김.
전개 ②	[] 기 [] 지 의 집에서 '나'와 [] 지 [] 오 이 담판을 벌임.
전개 ③	'[] 지 [] 트 '는 [] 지 [] 오 의 행동을 비판하며 '나'를 충동질함.
위기	'[] 지 [] 트 '의 부추김과 [] 지 [] 사 [] 오 의 충동질로 인한 [] 지 [] 오 과의 갈등 심화
절정 ①	[] 지 [] 사 [] 오 의 충동질로 [] 지 [] 오 과 활극을 벌이는 '나'
절정 ②	'나'는 [] 지 [] 오 의 편을 드는 [] 지 [] 사 [] 오 때문에 얼이 빠짐.
결말	싸움이 끝나고 '나'와 [] 지 [] 오 간에 [] 흥 [] 흥 가 이루어짐.

3. 등장인물의 성격

'나'	[] 지 [] 사 [] 오 와 [] 흥 [] 오 을 시켜 주겠다는 [] 지 [] 오 의 약속을 믿고 [] 지 [] 기 없이 일을 해 주고 있는 [] 오 사 리 하고 [] 사 비 한 인물
장인	[] 흥 [] 오 을 미끼로 [] 지 [] 지 리 을 착취하는 [] 오 사 적이고 [] 기 [] 흥 한 인물이며, [] 지 리 의 지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 표 [] 오 와 [] 기 [] 오 이 없음.
점순	[] 흥 [] 오 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부추겨 '나'가 [] 오 비 지 와 맞서게 하나, 정작 [] 씨 [] 오 이 벌어지자 [] 오 비 지 편을 들어 '나'를 [] 지 [] 흥 하게 함.

4. 「봄·봄」에 나타난 갈등의 내용과 원인

갈등의 원인	갈등의 내용
[] 지 [] 오 은 '나'와 점순이의 [] 사 [] 리 를 시켜 주기로 약속했으나, 점순이가 아직 덜 컸다는 이유로 계속 [] 흥 [] 오 을 미림.	'나'는 [] 오 을 하지 않고 [] 지 [] 오 에 대한 [] 비 [] 흥 으로 [] 기 [] 비 을 부리지만, 장인은 '나'를 때려서라도 [] 오 을 시키려 함. 결국 점순이와의 [] 사 [] 리 문제로 [] 지 [] 오 과 몸싸움을 함.
삼 년 넘게 일만 하면서 [] 사 [] 리 문제에 소극적인 '나'를 [] 지 [] 사 [] 오 가 담당해함.	[] 지 [] 사 [] 오 는 [] 흥 [] 오 을 재촉하기 위해 '나'를 충동질하지만, 정작 싸움이 나자 [] 오 비 지 인 [] 지 [] 오 의 편을 들.

TEST 4단계

1. 「봄·봄」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___ 소설, ___ 소설, ___ 소설
성격	___적, ___적
시점	___ 시점
구성	___적 구성
배경	• 시간적: ___년대 • 공간적: ___ 마을
주제	어수룩한 ___와 그를 이용하는 ___간의 ___적 갈등
특징	• 상황을 ___되게 설정하여 ___을 유발함. • 사건의 ___과 ___순서가 뒤바뀐 ___적 구성을 보임. • ___어, ___어 등을 사용하여 ___적인 느낌과 ___감을 줌.

3. 등장인물의 성격

‘나’	___와 ___을 시켜 주겠다는 ___의 약속을 믿고 ___없이 일을 해 주고 있는 ___하고 ___한 인물
장인	___을 미끼로 ___을 착취하는 ___적이고 ___한 인물이며, ___의 지위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___와 ___이 없음.
점순	___을 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부추겨 ‘나’가 ___와 맞서게 하나, 정작 ___이 벌어지자 ___편을 들어 ‘나’를 ___하게 함.

2. 「봄·봄」의 구성

발단	___문제를 둘러싼 ‘나’와 ___간의 갈등
전개 ①	___가 ‘나’에게 ___를 ___할 것을 부추김.
전개 ②	___의 집에서 ‘나’와 ___이 담판을 벌임.
전개 ③	‘___’는 ___의 행동을 비판하며 ‘나’를 충동질함.
위기	‘___’의 부추김과 ___의 충동질로 인한 ___과의 갈등 심화
절정 ①	___의 충동질로 ___과 활극을 벌이는 ‘나’
절정 ②	‘나’는 ___의 편을 드는 ___때문에 얼이 빠짐.
결말	싸움이 끝나고 ‘나’와 ___간에 ___가 이루어짐.

4. 「봄·봄」에 나타난 갈등의 내용과 원인

갈등의 원인	갈등의 내용
___은 ‘나’와 점순이의 ___를 시켜 주기로 약속했으나, 점순이가 아직 덜 컸다는 이유로 계속 ___을 미룸.	‘나’는 ___을 하지 않고 ___에 대한 ___으로 ___을 부리지만, 장인은 ‘나’를 때려서라도 ___을 시키려 함. 결국 점순이와의 ___문제로 ___과 몸싸움을 함.
삼 년 넘게 일만 하면서 ___문제에 소극적인 ‘나’를 ___가 답해함.	___는 ___을 재촉하기 위해 ‘나’를 충동질하지만, 정작 싸움이 나자 ___인 ___의 편을 듭.

O / X 문제

【1~10】 「봄·봄」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장인은 ‘나’와 점순이와의 성례를 최대한 빨리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O / X)

2.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O / X)

3. 이 작품은 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O / X)

4. ‘나’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대가 없이 일을 해 주고 있다. (O / X)

5. 장인은 마름의 지위에 있으며 교양이 있는 인물이다. (O / X)

6. 점순이는 ‘나’와 혼인이 하기 싫어서 ‘나’를 계속 피하고 있다. (O / X)

7. 몽태는 장인의 속셈을 간파하고 ‘나’에게 충고하고 있다. (O / X)

8. ‘나’와 장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행동을 통해 해학적 성격이 드러난다. (O / X)

9. ‘나’는 장인의 교활함을 눈치채지 못하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인물이다. (O / X)

10. 이 작품에서는 토속어, 비속어 등을 사용해 향토적 느낌과 현장감을 준다. (O / X)

1. X 2. X 3. X 4. O 5. X 6. X 7. O 8. O 9. O 10. O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2026 고1 공통국어1 지학사 | 1(2) 봄 · 봄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장인님! 인젠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안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꼬박이 일곱 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허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찌 볼 수 없이 고만 병병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최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 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린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승겁기도 할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았었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 번 재 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움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제-미, 키두!”

하고 논둑에다 침을 튜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넘을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 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뺨다귀가 움츠라드나 부다 하고, 내가 넉넉넉스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줘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죠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돼먹은 낱이 이래도 막무관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밍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승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머 먹은 걸 모르고 내 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으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난 몰 붓다 말고 배를 씨다듬으면서 그대루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에 껴든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돌아 오른 풀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쓱쓱 문태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 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드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우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드니 잡은 참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일허다 말면 누굴 망해 놀 셈속이냐? 이 대가릴 까놀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 놓고 ‘욕필이(번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 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푹 됐다. 작인이 닭 마리

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든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 들고, 동리 사람은 그 옥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실굶실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이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펍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나까 늦잠 잔다구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놔다. 사날씩이나 건승 ‘공, 공.’ 앓았드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갈에 벼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띠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혼자 삶어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온 경오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 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르치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구 무슨 혼인을 한다구 그러니, 온!”

하고 남 낫짝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댓돌에다 메꽃고 우리 고향으로 내 빨까 하다가 꺽꺽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작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 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스며,

“난 갈 테야유. 그동안 사경 쳐 내슈, 뭐.”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그러면 얼쩡 성렐 해 줘야 안 하지유. 밤낮 부러만 먹구 해 준다, 해 준다…….”

“글썸,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어름어름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지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구 뻘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러 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땡땡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즉 모르지만 병)이 날라구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들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든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두 아니고, 꼭 내 안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울에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현질이들 크건만 이걸 우아래가 몽푹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젤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흑흑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시니없이 들까브다고 하지만) 너머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째루 밭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래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텨가!”

하고 혼자서 쫓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